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집짓기'에 착안하여 '글쓰기'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 대상	착안점	연상한 내용
	집의 용도와 입주자를 생각하여 어떤 집을 지을지 결정한다.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어떤 글을 쓸지 결정한다..... ①
	건축 자재를 알아보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	자료를 찾아보고 적절한 글감을 선정한다..... ②
	집을 짓는 목적을 고려하여 집을 설계한다.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③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짓는다.	개요에 따라 글을 쓴다..... ④
	집이 적절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글을 다 쓴 후에 검토하여 고쳐 쓴다..... ⑤

2. '선행 학습식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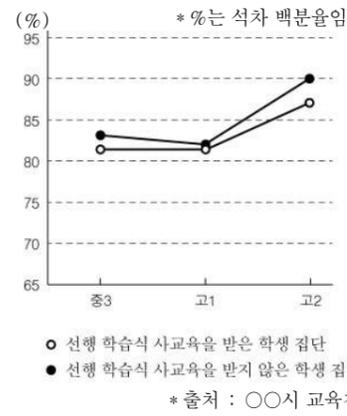
(가) 신문 기사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학생들이 선행 학습식 사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미리 배웠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업 중에 졸거나 잠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신문 -

(나) 통계 자료

1. 학생들의 성적 변화 추이      2. 학업 성적에 미치는 요인

(%) \*%는 석차 백분율임.



과목	선행 학습식 사교육을 받은 학생 집단	선행 학습식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집단
국어	독서 습관 > 학교 수업 집중도 > 선행 정도	학교 수업 집중도 > 선행 정도 > 독서 습관
영어	학교 수업 집중도 > 선행 정도 > 독서 습관	학교 수업 집중도 > 선행 정도 > 독서 습관
수학	학교 수업 집중도 > 선행 정도 > 독서 습관	학교 수업 집중도 > 선행 정도 > 독서 습관

\* 출처 : ○○시 교육청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다) 인터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선행 학습식 사교육을 시키면 자녀의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행 학습식 사교육은 학습량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들에게 학습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 시간마저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교육 전문가 -

- ① (가): 선행 학습식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 ② (나): 학업 성적에는 선행 학습식 사교육보다 학교 수업 집중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다): 선행 학습식 사교육이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④ (가)+(다): 선행 학습식 사교육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제시한다.
- ⑤ (나)+(다): 선행 학습식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3.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 공동 주택 층간 소음 문제의 실태 ..... ㉠

II. 본론  
1. 문제의 원인  
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부족  
나. 이웃 간의 상호 무관심과 불신 ..... ㉡  
다. 건설 회사의 부실시공  
라. 층간 소음을 규제할 관리 규정의 미흡

2. 문제의 해결 방안  
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나.  ..... ㉢  
다. 주민 대상 생활 장터의 활성화 ..... ㉣

III. 결론  
: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의 노력 촉구  
..... ㉤

- ① ㉠에는 층간 소음 때문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 사례를 자료로 제시한다.
- ② ㉡은 'II-1-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③ ㉢에 'II-1-다'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추가한다.
- ④ ㉣은 'II-1-라'를 고려하여 '층간 소음 문제를 야기하는 공동 주택 건설 축소 정책 실시'로 수정한다.
- ⑤ ㉤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관심과 노력의 촉구'로 바꾼다.

4.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람들은 흔히 귀엽게 생긴 모습 때문에 해달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해달의 생김새보다는 영리함 때문에 해달을 좋아한다. 해달은 전복과 같은 먹이를 먹을 때 돌로 전복 껍데기를 깰 정도로 ㉠ 지식이 높다. ㉡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알류산 열도에 이르는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해달은 쉬거나 잠을 잘 때에도 ㉢ 누워 있는데, 이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해초로 감을 정도로 똑똑하다.

어느 날 나는 수족관에 살고 있는 해달을 동영상에서 보게 되었다. 수족관에는 해초가 없기 때문에 해달은 자고 있는 동안 물의 흐름에 따라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 그리고 이때 다른 해달이 다가와서 자고 있는 해달이 떠다니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것이었다. 순간 무언가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방황하는 친구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 본 적이 있는지 ㉤ 반성하게 한다.



- ① ㉠은 어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능'으로 고쳐야겠군.
- ②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군.
- ③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바다에'를 첨가해야겠군.
- ④ ㉣은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그런데'로 바꾸어야겠군.
- ⑤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로 수정해야겠군.

5. 캠페인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문제 상황>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

<조건>  
○ 문제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  
○ 대조와 의인법을 사용할 것.

- ① 무관심으로 인한 오염, 부주의로 인한 산불! 아름다운 산을 지켜주세요.
- ② 무서운 불씨를 남기겠습니까? 아름다운 관심을 남기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산을 지킵니다.
- ③ 무관심에서 산불이, 관심에서 보존이! 산불 예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산이 웃고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④ 베푸는 산, 지키는 우리! 오늘 하루 산에서 천천히 걸어 보세요. 산도 여러분도 건강해집니다.
- ⑤ 아름다운 강산, 행복한 가족! 여러분의 자녀도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우리의 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6.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등한 자격을 지닌 단어들이 결합하여 합성어(合成語)가 될 때에는 일정한 결합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합성어의 결합 양상과 관련이 있는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차례로 파악하려는 경향
- 가까운 거리를 먼 거리보다 먼저 파악하려는 경향
-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요소보다 선호하는 경향
- 앞선 시간을 뒤에 오는 시간보다 먼저 파악하려는 경향

- ① 낮익은 얼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 ② 우리 고향에는 아름다운 돌다리가 있었다.
- ③ 강이 오염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④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겠니?
- ⑤ 건장한 청년 예닐곱 명이 한꺼번에 방으로 들어왔다.

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1>

높임 종류	높임 대상	높임 실현 방법
주체 높임	서술어의 주체	○ ‘께서’, ‘-(으)시-’ 등 ○ ‘편찮다’, ‘잡수다’ 등
객체 높임	서술어의 객체	○ ‘께’ 등 ○ ‘여쭙다’, ‘드리다’, ‘뵙다’ 등
상대 높임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	○ 종결 어미

<보기 2>

[분석 문장]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큰덕에 가지었어요.”

높임 종류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높임 대상	㉠	㉡	어머니
높임 실현 방법	께서, -시-	께, 드리다	㉣

- |        |      |     |
|--------|------|-----|
| ㉠      | ㉡    | ㉣   |
| ① 아버지  | 할아버지 | -요  |
| ② 아버지  | 할아버지 | 께   |
| ③ 할아버지 | 아버지  | -시- |
| ④ 할아버지 | 아버지  | -요  |
| ⑤ 할아버지 | 아버지  | 께   |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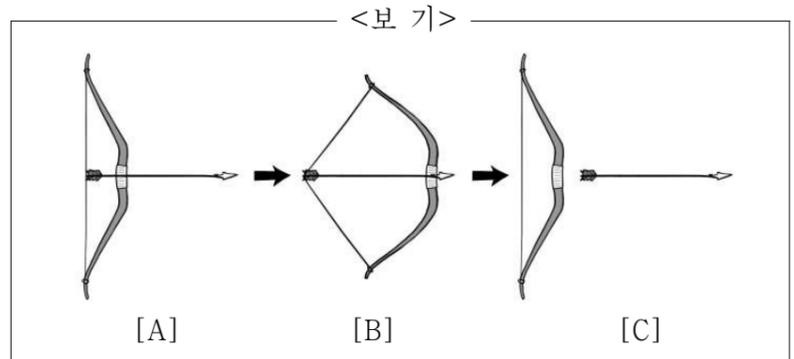
우리 민족은 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활을 중요한 무기로 여겼다. 이에 따라 활 제작 기술도 발달했는데, 특히 조선 시대의 활인 ㉠각궁(角弓)은 매우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각궁을 최고의 활로 만들었을까?

활은 복원력을 이용한 무기이다. 복원력은 탄성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아 휘어졌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으로, 물체의 재질과 변형 정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변한다. 이를 활에 적용해 보자. 활의 시위를 당기면 당기는 만큼의 복원력이 발생한다. 복원력은 물리학적인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이 시위를 당기면, 원래의 시위 위치에서 시위를 당긴 거리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화살에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위를 활대에서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더 큰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시위를 놓으면 화살은 날아가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즉 시위를 당긴 거리만큼 발생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화살을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한편 복원력은 활대가 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활대가 휘면 휘수록 복원력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좋은 활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탄성이 좋은 활대가 필요하다. 각궁은 복원력이 뛰어난 활이다. 그 이유는 각궁이 동물의 뿔이나 뼈, 힘줄, 탄성 좋은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서 만든 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을 합성궁이라고 부른다. 합성궁은 대나무와 같은 나무만을 재료로 만든 활보다 탄력이 좋아서 시위를 풀었을 때 활이 반대 방향으로 굽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궁은 뛰어난 사거리와 관통력을 갖게 되었다.

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B]로 진행되면서 활대의 복원력이 점차 커진다.
- ② [B]의 화살에는 [A]의 화살이 이동한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발생한다.
- ③ [B]의 활대는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더 큰 복원력이 발생한다.
- ④ [B]에서 [C]로 진행될 때, 화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 ⑤ [C]에서 활대의 복원력과 화살이 지니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양은 반비례 관계이다.

9. ㉠의 결정적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무만을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②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여 활대의 탄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 ③ 누구나 쉽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이다.
- ④ 시위를 풀었을 때 활의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복원력이 좋은 시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위	유치환
<p>㉠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 머언 원뢰(遠雷)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p>		
(나)	설일	김남조
<p>겨울 나무와                  바람                  ㉢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p> <p>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p> <p>㉣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출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p> <p>㉤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p> <p>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p> <p><small>* 이적진 : '이제까지는'의 방언.</small></p>		

(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p>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흘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p>		

1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다지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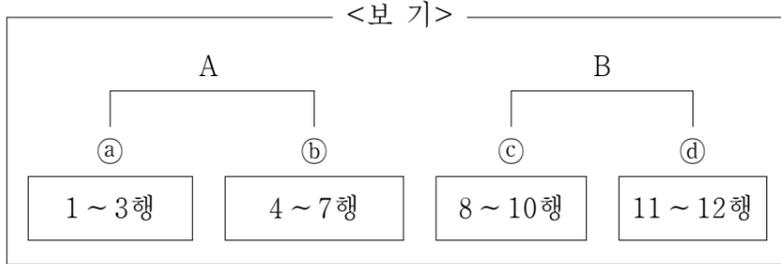
11.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에서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는군.
- ②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에서 시련을 묵묵히 견뎌 내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③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려는 것에서 자신을 단련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생명도 망각하’는 것에서 현실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 ⑤ ‘노래하지 않고’,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려는 것에서 일체의 감정을 초월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군.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단적인 상황의 가정을 통해 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시적 허용과 동일한 의미의 중첩을 통해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추상적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 (다)를 <보기>와 같이 파악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 ② A에서는 화자의 경험, B에서는 이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과 ㉢는 화자 자신을 향한 내면의 목소리가, ㉡와 ㉣는 청자에게 호소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④ ㉠ ~ ㉣에서는 특정 서술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시적 의미가 심화되고 있다.
- ⑤ ㉣는 ㉠와 달리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부터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중심지로 모여들고 이들이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중심지의 언어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언어의 전파 과정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을 수면에 떨어진 물체로부터 파생된 물결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 하여 '파문설(波紋說)'이라 한다. 이때 중심지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언어 세력을 '개신파(改新波)'라고 하고 세력의 중심지를 '방사 원점(放射原點)'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저지대가 방사 원점이 되는데 개신파가 퍼져 나가는 속도는 지리적 제약에 따라 달라진다. 넓은 평야 지대나 도로가 발달한 지역은 그 속도가 빠른 반면, 높은 산이나 강과 같은 장애물로 둘러싸인 지역은 그 속도가 느리다.

두 개 이상의 방사 원점으로부터 개신파가 확산되어 나갈 때, 개신파들이 부딪쳐서 양쪽 지역의 언어가 섞이는 지역을 '전이 지역(轉移地域)'이라고 한다. 가령 ㉠ '벼'를 '베'라고 하는 방언 지역과 '나락'이라고 하는 방언 지역이 있다고 하자. 이때에 '베'와 '나락'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베'만 쓰이는 지역의 방사 원점에서 멀어져 갈수록 '베'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다른 쪽의 '나락'만 쓰이는 지역 역시 방사 원점에서 멀어져 갈수록 '나락'의 세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베'와 '나락'이 거의 같은 세력으로 뒤섞여 쓰이는 지역이 나타난다면 이 두 방언 지역이 만나는 곳이 전이 지역이다. 그런데 '베'와 '나락'이 다 쓰이는 전이 지역에서, '베'는 눈에 있을 때의 벼만을 가리키고 '나락'은 벼단에서 텃 다음의 벼만을 가리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이 지역에서 의미가 독특하게 나누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신파들이 확산되어 나갈 때에 그중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을 '잔재 지역(殘滓地域)'이라 한다. 깊은 산중이나 외딴 섬과 같은 지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개신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연히 언어의 옛 형태가 유지되기도 한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잔재 지역을 그 지역 언어의 순수성을 지닌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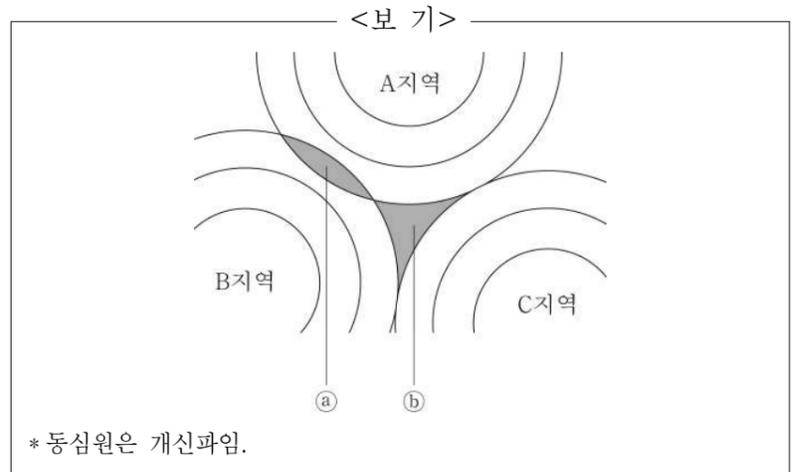
보기도 한다.

파문설은 언어가 전파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전이 지역과 잔재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가 전파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되는지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14.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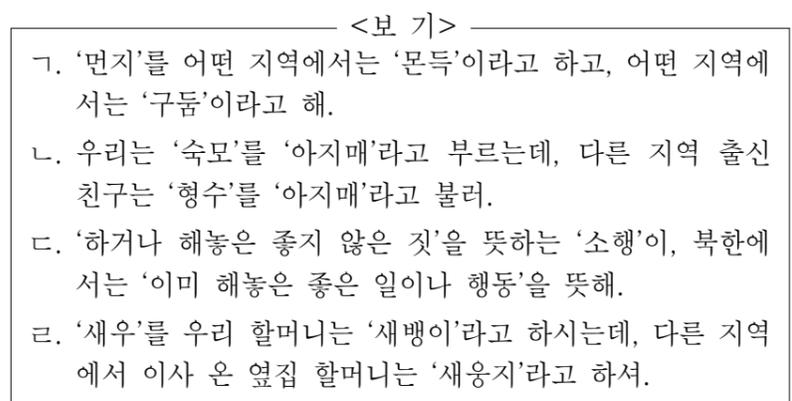
- ① 잔재 지역과 전이 지역은 일치할 수도 있다.
- ② 파문설은 언어의 전파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③ 사람들의 이동은 언어의 확산을 수반할 수 있다.
- ④ 지리적 조건이 언어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 ⑤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는 방사 원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 <보기>는 파문설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B, C 지역은 각각의 방사 원점을 갖고 있겠군.
- ② C 지역의 언어 세력이 강해질수록 ㉡도 커지겠군.
- ③ ㉠는 A와 B 지역의 언어적 특징이 뒤섞여 있겠군.
- ④ ㉡는 그 지역 본래의 언어적 순수성을 지니고 있겠군.
- ⑤ ㉡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높겠군.

16. ㉠과 유사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발레는 ‘춤 추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발라레(ballare)’에서 나온 것으로, 이탈리아 궁중 무용이 16세기 후반 프랑스에 도입된 후 궁중 연회 형식을 거쳐 독립적인 공연 예술로 발전하였다. 발레는 일반적으로 낭만 발레와 고전 발레, 모던 발레로 구분되는데, 줄거리, 형식, 남녀 무용수의 역할, 의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낭만 발레는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기틀이 잡혔는데, 목가적 분위기의 무대를 배경으로 요정을 사랑한 인간, 시골 처녀의 비극적인 사랑 등의 낭만적인 줄거리가 전개된다. 낭만 발레는 어스름한 조명 아래 창백하고 가녀린 요정들이 공중을 떠다니듯이 춤추는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으로 연출되어, 정교한 구성보다는 주인공인 여성 무용수를 돋보이게 하는 안무가 우선시되었다. 이 시기 발레의 주역은 여성 무용수들이었고, 남성 무용수들은 대개 여성 무용수를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회전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보조자에 불과했다. 요정들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발끝을 수직으로 세우고 춤을 추는 ‘포인트 동작’이 등장했고, 여성 무용수들은 ‘로맨틱 튀튀’라고 부르는 하늘하늘하고 여러 겹으로 된 발목까지 오는 긴 의상을 입어서 움직일 때마다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낭만 발레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러시아에서 고전 발레가 꽃을 피운다. 고전 발레는 전설이나 동화를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낭만 발레와 비슷하다. 하지만 화려하고 입체적인 무대 장치를 배경으로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구현하였다. 무용수의 화려한 기교를 다채롭게 보여주기 위해 발레에 일정한 규칙과 절차가 도입되었고, 정교하고 정확

[A] 한 동작을 바탕으로 안무가 정해졌다. 고전 발레는 남녀 주인공들이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2인무인 ‘그랑 파드되’, 여러 명의 솔리스트들이 차례대로 등장하여 다채로운 1인무를 보여 주는 ‘디베르티스망’ 등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 자리 잡았다. 남성 무용수들도 다양한 기교를 구사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여성 무용수들은 화려한 발동작이나 도약, 회전 등이 잘 보이도록 다리를 드러내는 짧고 뾰뚱한 ‘클래식 튀튀’를 주로 입었다.

20세기에는 기존 발레에서 반복되었던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난 모던 발레가 등장한다. 모던 발레는 특별한 줄거리 없이 특정 장면의 이미지나 주제를 무용수의 움직임 자체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해진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무용수의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약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동작과 몸의 선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니 무대 장치나 의상도 점차 간결해졌다.

발레는 정해진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구성되다 보니 언뜻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식과 표현이 정형화되었다가 점차 자유로워지고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7~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려고 한다. 17번과 1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p>제목: <input type="text" value="가"/></p>  <p style="text-align: center;">- 1 -</p>	<p><b>낭만 발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 초 <input type="text" value="a"/></li> <li>- 여성 무용수가 주인공</li> <li>-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장면 연출</li> <li>⋮</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2 -</p>
<p><b>고전 발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 후반 러시아</li> <li>- 남성 무용수의 역할 <input type="text" value="b"/></li> <li>- 정형화된 아름다움 구현</li> <li>⋮</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3 -</p>	<p><b>모던 발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기 이후</li> <li>- 무용수의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약화</li> <li>- <input type="text" value="c"/></li> <li>⋮</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4 -</p>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발레의 기원
- ② 발레의 숨은 매력
- ③ 발레의 사조별 특징
- ④ 발레의 예술적 가치
- ⑤ 발레 용어와 동작의 이해

18. ㉠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
| ① | 프랑스 | 확대 | 정형화된 형식 탈피 |
| ② | 유럽  | 축소 | 정교한 무대 구성  |
| ③ | 러시아 | 확대 | 정형화된 형식 탈피 |
| ④ | 프랑스 | 확대 | 정교한 무대 구성  |
| ⑤ | 유럽  | 축소 | 다양한 극적 구성  |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늦은 봄 떠나는 벗 보내고 오니 눈앞 가득 고운 풀에 맘이 아프네. 훗날 조각배 돌아오거든 뱃사공이여 알려 주소. 안개 낀 강 아스라이 천 리를 흐르고 ㉠ 마음은 버들가지인 양 어지러이 날리네. 하물며 꽃 지는 이 계절에 사람 보내고 연연하지 않겠나. ┌ 노을은 햇빛 비쳐 붉게 흐르고 └ 먼 강물은 하늘만큼 푸르네. [A] ┌ 강가의 버드나무 수없는 푸른 실은 └ 내 마음 엮매어 머물게 하네. - 이규보, 「모춘강상송인후유감(暮春江上送人後有感)」 -	暮春去送人歸 滿目傷心芳草 扁舟他日歸來 爲報長年三老 煙水渺瀰千里 心如狂絮亂飛 何況落花時節 送人能不依依 殘霞映日流紅 遠水兼天鬪碧 江頭柳無限絲 未解絆留歸客
---	--

(나)

나모도 돌도 바히 엷슨 뵈에 매게 쫓친 불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一千石) 시른 대중강(大  
 中缸)\*이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돛대도 짓고 농층\*도 끈코 키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거 자자진 날의,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고 사면(四面)이 거머어둑 천지 적막 가치노을  
 떠난대\*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 내 안히야 엇다가 가을하리오.\*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안: 안(內), 곧 심정.
- \*대중강: 규모가 제법 큰 배.
- \*농층: 돛대에 맨 굵은 줄.
- \*가치노을 떠난대: 사나운 물결이 일어나는데.
- \*도사공: 뱃사공의 우두머리.
- \*가을하리오.: 견주리오. 비교하겠는가.

(다)

목련꽃이 필 무렵이면 어렸을 때 내가 자랐던 시골집의  
 뜰에 피던 목련을 생각하게 된다. 병풍처럼 둘러친 대밭을  
 등진 남향의 우리 집 뜰에 황금빛 봄별이 아늑하면 망형  
 (亡兄)의 병창(病窓)\*앞, 잎이 피기도 전인 나목(裸木)의  
 가지 끝마다에 붓처럼, 가지[茄]\*처럼 모두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세운 꽃망울들이 공간이라는 호수에 뜬 연꽃인 듯  
 피어나기도 하고 봉긋하게 모은 두 손인 듯 내일을 기약하  
 는 모습을 생각한다.  
 [B] ┌

내가 특히 목련이 필 무렵이면 옛집을 생각하는 데는 슬프  
 게 살다 간 망형의 영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형이 지금  
 살아 있다면 여든 일곱의 나이인데 그가 돌아가신 건 마흔 여  
 똥의 젊은 나이였으니 그가 죽고 나서 오늘로 40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형은 우리 8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는데 막내인  
 내가 태어나기 일 년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8남매는 어머니 없이 올망졸망 자란 것이다. 따라서 우  
 리 8남매는 한 몸처럼 결속했고 사랑했다. 특히 동생들에 대  
 한 형의 사랑은 형제 사랑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식보다는 형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끝에 “처자는 의

복이요, 형제는 수족이라. 의복파시(衣服波時)엔 갱부득(更不得)이나 수족단시(手足斷時)엔 난부속(難不續)이라.”는 옛말  
 을 인용한 적이 있다. 말뿐이 아닌 실제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  
 고 행동했었다. 한 말로 말해 그가 나중에 얻은 자기 자신의  
 아들 딸들에 대한 사랑이 동생들 사랑보다 더했으리라고는 생  
 각할 수가 없음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 실증은 갖가지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지금  
 내 자식들이 하는 우애라는 것을 나는 비웃고 싶어진다. 아버  
 지마저 오래 살지 못했으니 나는 형의 보살핌으로 자란 셈이  
 며 나중에 떠난 육친을 생각할 적엔 아버지보다는 형이 앞선  
 다. 그 형이 열넷의 어린 나이로 결혼을 했고 다음에 잘못해서  
 눈을 다친 것이 화근이 되어 끝내는 화농\*하기에 이르렀더라  
 는 것이다. 항생제가 판을 치는 오늘날이라면 문제가 없었으면만  
 70년 전의 옛일이니 사정은 다르다. 대도시에만 있었다는 병  
 원을 찾아 부산도 서울도 다녔다지만 오늘날과 같은 안과의나  
 시설이 있을 리도 없었으므로 끝내 완치하지 못한 채 오랜 세  
 월을 투병으로 허송했었다.

(중략)

눈이 어두운 몇 번의 봄을 나면서 형은 나에게 뜰 아래 목  
 련꽃이 피었느냐고 묻곤 했다. 그럼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미 피었다고도, 아직은 이르다고도 혹은 이미 낙화해 저버렸  
 다고도 알려드리면 형은 자기가 묻고 있는 목련의 현황보다는  
 떨리는 나의 목소리만 듣고도 울긴 왜 우느냐고 달래곤 했었  
 다. 그러던 형이 끝내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시골집도 누구의  
 소유로 넘어갔는지 알길 없으며 거기 서 있던 목련꽃 나무에  
 이르러서야 더구나 알 바가 없다. 그 뒤 나는 고향을 멀리하고  
 객지로 전전하며 생애의 대부분을 살아온 동안 4월이 오면 형  
 의 슬픈 모습과 목련을 생각하는 버릇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어느 날 밤, 꿈속에 형이 나타났는데 그 깨끗하고 다  
 정하고 재기에 넘친 건강했던 시절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꿈  
 속에서도 생각하기 싫은 병상에서의 형의 모습이었다. 형은  
 “목련이 지금 피었느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꿈속에서도 그  
 옛집이 이미 우리 집이 아니고 그 목련 또한 어찌되었는지 알  
 지 못하면서도 “네, 한창 피었네요.”하고 대답했더니 형은 금  
 세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그러나 내가 한 거짓말의 뜻이야 모르겠느냐고 생시처럼 너그  
 러웠다. 형을 속인 죄책감에 어찌지 못하다가 눈을 뜨고 나니  
 등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래서 나는 이 목련이 필 무렵  
 이면 고향의 옛집을 생각하고 망형의 병창 앞에 서 있던 한  
 그루 자목련을 회상한다.

- 박규환, 「목련꽃 필 무렵」 -

- \*망형의 병창: 죽은 형이 병을 앓으며 누워 있던 방의 창.
- \*가지[茄]: 연 줄기.
- \*의복파시(衣服波時)엔 갱부득(更不得)이나 수족단시(手足斷時)엔 난부속(難不續)이라.: ‘의복이 상하게 되면 다시 얻기 어렵지만, 팔다리가 잘려지면 이어 붙이기 어렵다’는 뜻.
- \*화농: 종기가 끓어서 고름이 생김.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을 통해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단절이 작품을 창작한 계기가 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⑤ 특정 공간에서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2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떠난 벗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고, ㉡은 입을 잃은 허전한 마음이다.
- ② ㉠은 벗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운 마음이고, ㉡은 자신을 떠난 입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다.
- ③ ㉠은 벗을 떠나보내서 생긴 심란한 마음이고, ㉡은 입의 상실로 인해 생긴 절망적인 마음이다.
- ④ ㉠과 ㉡ 모두 떠난 사람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해서 생긴 아쉬운 마음이다.
- ⑤ ㉠과 ㉡ 모두 떠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이다.

26. [A]와 [B]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글쓴이의 처지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고백적 어조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자연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색채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활용하여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회상의 매개체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27. (나)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 할 때,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 <보 기> —

나모도 업슨 피에 매게 쫓친 불가토리,  
대천 바다 한가온대 수적 만난 도사공,  
진실로 님 여훤 나와 견줄 거시 업도다.

- ① 종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더 강조해야겠어.
- ② ‘불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좀 더 풍자적으로 그려야겠어.
- ③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과 열거를 사용해야겠어.
- ④ 화자의 심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겠어.
- ⑤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대로 활용해야겠어.

28. (다)의 글쓴이가 <보기>와 같이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머니는 막내인 저를 낳고 일 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 말이인 형은 우리 8남매를 자신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은 그만 눈을 다치셨죠. .... 눈이 어두운 형은 봄이 되면 목련꽃이 피었느냐고 물었고 ㉡ 저는 울면서 대답하곤 했지요. 그러면 형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곤 했어요. ㉢ 형이 돌아가시고 저는 시골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형이 저에게 목련이 피었느냐고 물으셨죠. ㉣ 알 수 없었지만 한창 피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 그러자 형은 저의 거짓말에 평상시처럼 크게 화를 냈고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목련이 필 무렵이면 고향의 옛집과 형의 방 창문 앞에 있던 한 그루의 자목련을 회상합니다.

- 망형을 잊지 못하는 동생이 형에게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산대**에서 호왕을 만나 정한담이 한 피를 내어 말하길, “소장이 육관 도사에게 십 년을 공부해 재주가 무궁하여, 제가 휘두른 칼머리에 강산도 무너지고 드넓은 바다도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명진 도원수 유충렬은 사람이 아니라 천신입니다. 이제 비록 대왕이 억만 병을 거느리고 왔으나 충렬을 잡기는커녕 그와 맞붙어 싸울 장수도 없으니, 만일 싸운다면 우리 군사가 씨도 없이 다 죽을 것이요, 대왕의 귀중한 목숨마저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삼경에 군사를 나누어 먼저 금산성을 공격하면 충렬이 분명히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 소장이 도성에 들어가 천자에게 항복을 받고 옥새를 빼앗으면, 충렬이 비록 천신인데도 제 임금이 죽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싸우겠습니까? 소장의 피가 마땅할 듯한데, 대왕의 생각은 어떠하시나이까?”

하니, 호왕이 기뻐 한담을 대장으로 삼고 천극한으로 선봉을 삼아 약속을 정하고 깃발을 두르고 도성으로 갈 듯하니, 원수(유충렬)가 산에서 적의 형세를 탐지하고 급히 도성으로 돌아오더라.

이날 밤 삼경에 한담이 선봉장 극한을 불러 군사 십만 명을 주어 금산성을 치라 하니, 극한이 명령을 받아 **금산성**으로 달려 들어갔다. 극한이 금산성 아래에 십만 병사를 나열한 후 호통을 지르며 달려가 명군을 휘저으니, 명군이 불의의 습격에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

이때 원수는 **도성**에서 적의 형세를 탐지하고 있었는데, 한 군사가 급히 달려와 아뢰기를, “지금 도적이 금산성으로 쳐들어와 군사를 다 죽이고 중군장을 찾아 횡행하니, 원수께서는 급히 와 구원하소서.”

하니, 원수가 놀라 나는 듯이 금산성으로 달려가 벽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적진을 헤치고 중군장 조정만을 구하여 장대에 앉힌 후, 혼자서 말을 타고 성화같이 적군에게 달려갔다. 원수의 장성검이 지나는 곳에 천극한의 머리 떨어지고 원수의 천사마 닿는 곳에 십만 군대가 팔공산의 초목이 구시월 만난 듯

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칼끝을 보니 정한담은 간데없고 앞뒤로 쌓인 것이 못 보던 되놈들뿐이었다.

이때 한담이 원수를 속이고 우수한 군사만을 가리어 급히 도성으로 쳐들어가니, 도성 안에는 군사가 없었다. 천자는 원수의 힘만 믿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는데, 뜻밖에 수많은 적병들이 성문을 깨뜨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와 함성을 지르기를,

“이봐, 명제(明帝)야! 네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팔랑개 비라 하늘로 날아오르며 두더지라 땅속으로 들어가겠느냐? 네 놈의 옥새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달아나겠느냐? 빨리 나와 항복하라.”

하는 소리에 궁궐이 무너지며 낮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하였다. 천자가 낮을 잃고 용상에서 떨어졌으나, 다급히 옥새를 품고 말 한 필을 잡아타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북문으로 빠져나와 변수 가로 도망갔다. 한담이 쫓아내 달려들어 천자를 찾았으나 천자는 간데없고, 태자가 황후와 태후를 모시고 도망하기 위해 나오는지라. 한담이 호령하며 달려들어 태자 일행을 잡아 호왕에게 맡긴 후, 북문으로 나와 보니 천자가 **변수 가**로 도망가고 있었다. 한담이 기뻐하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구척이나 되는 긴 칼을 휘두르니 천자가 탄말이 백사장에 거꾸러지거늘, 한담이 천자를 잡아내어 말 아래 무릎을 꿇리고 서리 같은 칼로 통천관\*을 깨어 던지며 호통하기를,

“이봐, 명제야!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 네 어찌 계속 천자이기를 바랄쏘냐. 내가 네 한 놈 잡으려고 십 년을 공부하여 변화가 무궁한데, 네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충렬을 얻어 내 군사를 침략하느냐. 네 죄를 따진다 면 지금 곧바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나 옥새를 바치고 항서를 써서 올리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놈은 물론 네놈의 노모와 처자식들을 한 칼에 죽이리라.”

[A]

하니, 천자 어쩔 수 없어 말하기를,  
“항서를 쓰려고 해도 종이와 붓이 없다.”

하시니, 한담이 분노하여 창검을 번득이며 말하길,  
“용포를 찢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항서를 쓰지 못할까.”  
하는지라. 천자가 용포를 찢고 손가락을 깨물었으나 차마 항서를 쓰지는 못하고 있었으니, 어찌 하늘인들 무심하리오.

이때 원수가 금산성에서 적군 십만 명을 한 칼에 무찌르고 곧바로 호산대로 달려가 적의 구원병을 씨도 없이 죽이려고 가는데, 뜻밖에 달빛이 희미해지며 난데없이 빗방울이 원수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원수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말을 잠깐 멈추고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떨어져 변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이게 웬 변이냐?”

하고, 산호로 장식한 채찍을 높이 들어 채찍질을 하면서 말에게 정색하고 말하기를,

“천사마야, 네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 지금 천자께서 도적에게 잡혀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달려 있다. 순식간에 달려가서 천자를 구원하라.”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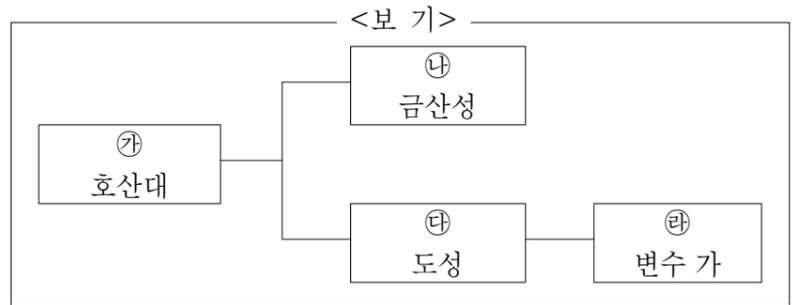
- 작자 미상, 「유충렬전(劉忠烈傳)」 -

\* 통천관 : 황제가 정무(政務)를 보거나 조칙을 내릴 때 쓰던 관.  
\* 자미성 : 별 이름. 중국 천자의 운명과 관련된다고 함.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천자는 정한담의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 ② 천자는 현재 원수의 행위에 대해 미심쩍어 하고 있다.
- ③ 정한담은 원수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있다.
- ④ 정한담은 원수가 천자가 될 수 있는 재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원수는 조정만이 군사적 지략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0.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제시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한담은 ㉠에서 ㉡에 있는 천자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② 정한담이 천극한으로 하여금 ㉡를 공격하게 한 것은 자신이 ㉢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 ③ 원수가 ㉢에서 ㉣로 이동한 것은 정한담의 계략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 ④ 원수가 ㉠로 가는 도중에 ㉡로 진로를 바꾼 것은 천자를 구하기 위함이다.
- ⑤ 정한담은 ㉢로 천자를 유인하기 위해 ㉡를 공격한다.

31. [A]에 나타난 ‘정한담’과 ‘천자’의 말하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한담은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천자는 그 정당성의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 ② 정한담은 뛰어난 업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천자는 이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
- ③ 정한담은 상대방이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천자는 그 조건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 ④ 정한담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강요하고, 천자는 구차한 변명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 ⑤ 정한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도록 위협하고, 천자는 그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려 하고 있다.

32. ㉠에 나타난 천자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재경각(命在頃刻)                      ② 견리사의(見利思義)
- ③ 소탐대실(小貪大失)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⑤ 인과응보(因果應報)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 전화를 구입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청소년만 이러한 동의를 있어야 할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거나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사 능력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민법에는 의사 능력의 판단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 취급(取扱)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인 미성년자가 있다.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 인식(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즉 부모이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삼촌, 고모 등과 같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가 계약으로 인한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 반환(返還)해야 한다. 상품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미납 요금이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 지급(支給)하면 이는 계약을 추인(追認)\*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거짓말로 사업자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하거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을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사유 재산의 소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권(催告權)을 ㉥ 부여(附與)하고 있다. 이때 유예 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또 사업자가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이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추인: 지나간 사실에 대해 추후에 인정하거나 동의함을 뜻함.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계약은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행위이다.
- ② 친권자와 후견인은 동시에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나이는 법적으로 의사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성인이 한 계약은 계약자의 의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4.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결과’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항목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인터넷 법률 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의 취소 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점 검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면 아래에 결과가 나옵니다.

질문 항목	선택	
	예	아니요
㉦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가요?	✓	
㉧ 부모님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나요?	✓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나요?		✓
㉩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을 했나요?		✓
<b>결과</b>	<b>_____로 인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b>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5. ㉠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인해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 ② 국가는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④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지니고 있는 권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미성년자는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함.
- ②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③ ㉣: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 ④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 ⑤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적 민족 운동을 시작한 아버지는 해방 후에 좌익 활동에 나서게 되고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탄압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된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좌익 활동을 그만둔 것처럼 위장했던 아버지는 6.25 전쟁이 일어난 후 종적을 감춰버린다. 이후 30여 년간 남은 가족들은 가난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된다.

낮잠을 주무셔서 그런지 할머니는 밤잠이 별 없으신 편이었다. 새벽 두세 시쯤 어찌다 소피라도 보려 마루로 나오면 부엌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다. 무심코 문을 열고 보면 할머니는 마치 늙은 여우가 호호백발로 둔갑한 듯 눈을 빠끔히 뜨고 오두마니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깊으신지 할머니는 꼭 심야에 한두 차례 일어나 앉아 담배를 태우며 일이십 분을 보내시다 다시 잠을 청하곤 했다. 지난날 굶이 굶이 살아온 삶의 한 자락을 펼쳐놓고 계신 게 분명했고, 당신이 결코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지만 삼십 년 넘도록 소식 없는 외동아들 생각을 담배 연기 속에 풀어놓고 있으리라.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 할머니가 서울로 오신 얼마 뒤 언젠가 내가 할머니께 물었던 적이 있었다. “할무이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지?” 할머니는 눈만 깜박거리실 뿐 쉬 대답을 않으셨다. 내 질문에 심란한 듯 담배를 태워 물었다. 당신은 손자의 그 질문을 가슴 깊이 새기신 듯,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일요일,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런 얘기를 골목길에서 나누는 것을 나는 엿들을 수 있었다. “㉠ 자숙은 키아놓고 보모 다 소용없심더. 그래 애써가미 공부시킬 때가 켈로 좋은 시절이지예. 대가리 굶어지모 별씨러 부모 말 안 듣고 어긋나기 십상임더.” 무슨 얘기 끝인지 지나치듯 한 할머니의 말에서 나는 아버지를 중학 공부시킬 때 할머니의 기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위로 낳은 아들 둘을 흥역으로 내리 잃고 세 번째 얻은 아버지를 모화보통학교에 보냈을 때, 할머니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즐거움이란 대단했을 것이다. 그 시절, 할아버지는 억척같은 노력과 근검절약 끝에 반자작농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향리 보통학교를 일등으로 졸업한 뒤, 해마다 인근 군에서는 한둘 입학이 고작이라는 울산농업학교에 쉽게 합격했다. 그래서 중학 오 년을 모화에서 울산까지 기차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를 통학했던 모양이다. “새복같이 아침밥 해 먹여 벤또\* 싸가주고 영감하고 같이 아들을 사이에 끼고 역까지 바래다 주던 그때가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제.” 고모님이 할머니 말씀을 흥내 내어 들려주던 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학교 졸업과 더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 밖에 난 모양이었다. 수리조합이니 면 서기니 금융조합이니, 그 좋다는 직장을 다 마다하고 모화에서 야학당을 개설하여 농민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왜경 눈에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으로 지목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주재소로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중략)

“아이고, 아이고, 살아생전 호강 한분 몬 해보고, 이날 이때까정 대접받는 밥 한 그릇 몬 자시보고 돌아가시다 아..... 어무이요. 어무이요. 이 문난 딸자숙 욱이나 실컨 하이소. 마음씨가 여러 딸네 집에 살 때는 사위 보기 미안

타미 늘 눈 한분 몬 치켜뜨고 밥상 앞에 앉으셨고, 범상\*인 메누리는 무슴다고 울산 쪽은 얼씬도 몬 하셨고, 겨우 마 음씨 고분 손자메누리 덕에 뿔 년은 자알 지내셨는데, 또 원수지간인 메누리 눈칫밥 목자, 그기 어테 소화나 제대로 뿔겠습니껴.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 얼굴 한분 몬 보고 마 이래 눈감으시다니.....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보고, 한이 되고 암이 돼도 이날 이때까정 보도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도 받을 필요 읍다는 아들이라며, 오빠 기다리는 정성 하나로 목숨 부지해오 시다가.....”

“고모님, 그만 우시이요.” 내가 말했다.

아내가 잠시 부엌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 나는 다시 담배 한 대를 꺼내 물며 무심코 할머니 얼굴에 눈을 주었다. 순간, 나는 할머니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얼굴이 평온하고, 구긴 미농지\* 같은 그 많은 주름도 조금 퍼져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가 초점이 없었다.

“고, 고모님 할무이가.....”하고 더듬거리며, 나는 장작개비같이 마른 할머니 팔목을 잡고 맥을 집었다. 맥박이 뛰고 있는지 멈췄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고모님이 할머니의 얼굴을 감싸 안고 엎어지더니 와락 통곡을 쏟기 시작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쉽게 흘러내렸다.

“준구 엄마, 어무이!” 내가 아내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렀다.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왔다. 집 안에 계시지 않는지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 있는 장의사와 윤 내과에 들르려 내가 골목길로 허겁지겁 뛰어 나갈 때, 맞은쪽에서 어머니와 준옥이가 나란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준옥이의 손을 잡고,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내 다급한 걸음과 얼룩진 눈을 보고도 어머니는 애써 눈길을 피했다. 네 할미가 어찌 됐냐고 물으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그때 들고 오신 비닐봉지 속에는 간갈치 두 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고모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할머니가 사십여 년을 차고 다닌 낡고 닳아빠진 비단 꽃주머니 속에서 동전 삼백 원과 닳은 증명서 한 장이 나왔다. 모서리가 닳은 그 증명서는 누렇게 색 바랜 아버지의 손톱만 한 흑백 사진이 붙은 ㉡ '보도연맹 가입증'이었다.

- 김원일, 「미망(未忘)」 -

\* 벤또: '도시락'의 일본말.

\* 범상: 호랑이상. 전체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선이 굵은 얼굴형.

\* 보도연맹: 1949년 정부에서 좌익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 미농지: 탁나무 껍질로 만든 얇은 종이.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이야기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 ④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 심리 위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한 인물의 시점에서 여러 인물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나’는 ‘할머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
- ② ‘어머니’는 ‘할머니’ 몰래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 ③ ‘고모’는 순탄하게 살아오지 못한 ‘할머니’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 ④ ‘아버지’는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적인 성공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 ⑤ ‘할아버지’는 늦게 얻은 자식인 ‘아버지’가 학업에 뛰어난 것을 기특하게 생각했다.

39. ㉠에 담긴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부하고 있다.
- ② 과거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며 다른 사람의 실패를 한탄하고 있다.
- ③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감정과 현재의 안타까움을 중첩시키고 있다.
- ④ 과거 자신의 신념과 현재 자신의 생각을 견주어 가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⑤ 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화 상대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40. [A]와 <보기>를 근거로 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미망(未忘)’의 뜻은 ‘잊지 못함’이다. 민족의 이념적 대립과 남북 분단이 가져다준 치명적인 상처를 품고 살아온 가족의 이야기를 제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소식 없는 아들의 안위에 대한 염려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 ①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개인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지켜 온 모성애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② 이념적 대립에서 비롯된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③ 이념적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다음 세대의 과제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④ 이념적 대립 가운데 외면당해 온 구세대의 소외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⑤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낭비되는 민족 역량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양 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즉, 인성론이 매우 발달했다. 동양 철학에서 논의되었던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범주와 관련지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맹자(孟子)의 인성론도 이 중의 하나다.

맹자의 인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 고자(告子)의 인성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자는 식욕과 색욕이라는 생리적 욕망을 본성이라고 하였다. 생리적 욕망은 인간이나 동물이 다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 생리적 욕망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소용돌이치는 물 자체에는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방향의 구분이 원래 없어서 동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서쪽으로 흘러가듯이, 사람에게도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원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인(匠人)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때 버드나무 속에 본래 바구니가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의 성질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장인의 손길로 버드나무에서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 보았다.

이에 대해 맹자는 물에 동서는 없어도 상하가 있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성에는 선(善)으로 향하는 본래적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버드나무에 훔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덕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 본능은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만이 독특하게 지닌 도덕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만을 본성으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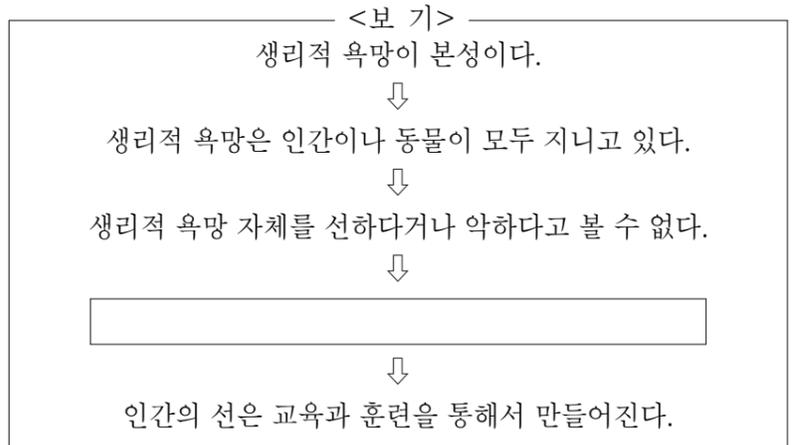
[A] 맹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인(仁)의 단서, 불의(不義)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단서, 사양하는 마음을 예(禮)의 단서, 옳고 그름을 가려 낼 줄 아는 마음을 지(智)의 단서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단서, 즉 사단(四端)은 인간에게 사지(四肢)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인간은 사단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가려낼 줄 아는 선천적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양지 양능(良知良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단을 잘 길러 낼 것을 의식적으로 반성[思]하여 스스로 이를 확충하고 길러 내면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감각적, 생리적 욕구에 이끌려서 사단을 무시해 버리고 내버리면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맹자는 악의 원인을 자포자기(自暴自棄)에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맹자의 생각은 인간 스스로가 바른 도덕성을 길러 갈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자의 인성론을 고자의 인성론과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맹자의 인성론에 담겨 있는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③ 맹자의 인성론이 지닌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맹자의 인성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맹자의 인성론과 고자의 인성론을 제시한 후에 이를 절충적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42. <보기>는 ㉠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 ② 생리적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악한 삶이다.
- ③ 동물의 생리적 욕망은 인간의 본능과 동일하다.
- ④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
- ⑤ 교육과 훈련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

43. 위 글에 제시된 ‘맹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성에는 선으로 향하는 본래적 성향이 있다.
- ② 인간에게는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덕성이 내재해 있다.
- ③ 사단을 지니고 태어나면 누구나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된다.
- ④ 인의예지의 단서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본성이다.
- ⑤ 사단을 무시해 버리고 내버리면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

4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쓰인 것은?

- ①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았다.
- ② 그녀는 음식점에서 맛선을 보았다.
- ③ 나는 친구와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
- ④ 철수는 어제 엄마와 함께 시장을 보았다.
- ⑤ 내 친구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많이 보았다.

44. [A]와 <보기>의 내용을 비교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이 타고난 그대로의 자연스런 본능이 성품(性品)이며, 인간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인위(人爲)이다. 즉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이 성품이라면, 배고파도 어른에게 양보하고 피곤해도 어른을 대신해 일하는 것은 인위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런 본능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다투고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스승의 교화를 받아 예의 법도를 따르게 되면 질서가 유지된다. 따라서 인간의 성품은 악하나, 인위로 인해 선하게 된다.

- ① [A]와 <보기>에서는 모두 의도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있군.
- ② [A]와 <보기>에서는 모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고 있군.
- ③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인간은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④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이나 본능이 있다고 보고 있군.
- ⑤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바탕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